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KEA 회장 재선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11일 제43회 정기 총회를 열고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을 회장(사진)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흥정밀과 이랜텍이 부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코웨이는 부회장사로 승격됐다. 이사사인 LG이노텍과, 감사사인 진영지앤티 역시 재선임됐다.

신규 임원사로는 대유위니아와 에스더블유엠이 새로 선임됐다.

김 회장은 19대 회장으로 2021년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전자산업 60주년을 맞이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회원사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와 원활한 소통 역할 확대에도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

신한카드, 고객봉사단과 책가방 만들기 봉사활동 신한카드는 자사 고객으로 구성된 '신한카드 아름人 고객봉사단'(이하 고객봉사단)이 사단법인 함께하는사랑밭과 해외아동 책가방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고객봉사단 발대식과 함께 이뤄진 해외아동 책가방 만들기 봉사활동은 고객봉사단이 사단법인 함께하는사랑밭 이미란 강사의 나눔 특강을 함께 들은 후 저개발국 아동들을 위한 책가방을 만드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신한카드

올리브영, 유네스코 소녀교육에 2.8억 기부 올리브영이 베트남 소녀들의 교육 지원에 발벗고 나선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은 지난 한 해 동안 조성한 기금 약 2억 8000만 원을 유네스코 소녀교육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올리브영 명동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지난 7월 말랄라의 날을 맞아 진행된 소녀교육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CJ 올리브네트웍스

골든블루, 술 문화 박물관에 365만원 기부 골든블루는 지난 7일 충북 충주에 위치한 세계 술 문화 박물관인 리쿼리움에 기부금 365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리쿼리움 김형호 부관장(왼쪽부터), 리쿼리움 설립자 이종기 양조 장인, 리쿼리움 김종애 관장, 골든블루 마케팅본부장 박희준 전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골든블루

맥도날드, 아빠와 함께하는 축구교실 개최 맥도날드는 지난 10일 '2019년 아빠와 함께 하는 축구교실' 첫 수업을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 맥도날드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로날드 맥도날드 어린이 축구교실'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 전역 8개 구장에서 진행됐으며, 아빠와 자녀가 함께 프로 축구 구단인 FC 서울의 유소년 코치가 진행하는 축구교실에 참여해 드리블과 패스, 슈팅 등 축구 기본기를 익히고 미니 축구 게임을 즐기며 유대를 다졌다. /맥도날드

폐업시 손실 줄이는 방법

이상헌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폐업시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자주받는 질문이다. 소위 하이에나 비즈니스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50대 가장의 명목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412만원으로 1년전보다 2.4% 줄었다. 60대이상 가구주와 40대 가구주의 가계 가처분소득도 각각 8.0%와 6.3% 감소했다. 그만큼 어려움을 반증하는 수치들다. 특히 창업자들의 평균 수익성은 전년도 대비 6.4%의 하락을 기록했다. 참으로 심각하다.

폐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행정적 절차와 실무적 절차로 구분된다.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금에 관한 정산과 건물주인과의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실무적 절차는 점포의 양도양수나 시설물에 대한 철거, 그리고 집기나 용품에 대한 처리로 구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절차가 녹녹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행정적 절차는 처리 매뉴얼에 따라 신고하고, 반납하고, 지급하는 수순을 밟으면 되지만 정작 어렵고 힘든 것은 실무적 처리다. 가장 이상적은 폐업방식은 현 업종을 그대로 제 3자에게 판매하는 인계방식이지만 그 대상과 적임자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양도양수방식이 가장 투자비용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그 대상을 찾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그러다 보니 약점만을 노리고 심리적 조급함을 사업으로 이용하는 악질 부동산업자에게 소개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본사에 점포양도 양수를 의뢰해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지역과 금액, 영업상태, 본사의 지급금액, 등으로 인하여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본사입장에서도 신규 가맹점을 늘이는 방법이 수익성 측면에서 우수한데 굳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양도양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드물다.

어찌 되었건 현상태로 양도양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어쩔 수 없이 시설물 처리를 통한 폐업을 해야한다. 이럴경우 먼저 점포계약서에 준한 문구와 계약사항을 철저히 점검 해야한다. 만약 임대계약서에 원상복귀나, 원상태, 혹은 시설전 상태 라는 표현의 문구가 있다면 추가의 철거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약전 상태로 복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시 조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영악화로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폐업전 두가지의 처리방법을 점검해보자. 한 가지는 위탁운영이다. 위탁운영은 적당한 매매나 폐업시점까지 시설물이나 점포를 활용해 타인에게 영업행위를 승인하고 최소한의 경상비를 납부하게 하는 상생운영방식이다. 최근에는 임대기간전에 폐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의 지영업자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위탁자를 찾는게 현명한 방식이다. 두 번째로는 업종변경이다. 기존의 집기나 시설문을 활용한 주변상권에 적합한 아이템으로의 전환을 최소의 추가비용을 고려해보는 방법이다. 폐업시 손실을 줄이려면 현 업종으로의 양도양수가 우선이다. 그러기위한 업종변경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창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폐업을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손실의 폭은 다양하게 나타남을 인식하자.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CJ 4DPLEX, '2019 세계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선정

美 경제전문매체 발표
미래형 영화관 모델 주목

오감체험 특별관 '4DX'와 세계 최초 기술 통합관 '4DX with ScreenX'가 세계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CJ CGV는 미국 경제 전문매체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가 발표한 '2019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2019)'의 '라이브 이벤트(Live Events)' 부문에 CJ 4DPLEX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CJ 4DPLEX가 자체개발한 '4DX'와 '4DX with ScreenX'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전세계 관객들에게 색다른 관람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4DX'는 2018년 한 해 동안 30개 국가에 총 139개 상영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전세계 600개 스크린을 넘어서는 성장을 이뤘다. 또한 세계 최초 기술통합관인 '4DX with ScreenX' 글로벌 1호점을 프랑스 파리에 오픈해 호응을 얻고 있는 점 또한 고무적인 성과다. '4DX with ScreenX'는 지난해 미국의 권위 있는 발명 시상식 '2018 에디슨 어워드'에서 '미디어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 엔터테인먼트' 부문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4DX with ScreenX /CJ CGV

'4DX'는 특수 환경 장비와 모션 체어가 결합돼 영화 장면을 따라 의자가 움직이거나 진동이 발생하고, 바람이 불고, 물이 튀는가 하면 향기까지 나는 다양한 오감 효과를 제공한다.

'4DX with ScreenX'는 영화 장면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4DX'와 정면 스크린을 넘어 좌우 벽면까지 3면이 스크린으로 펼쳐지는 다면상영시스템 '스크린X'가 결합된 신개념 기술 통합관이다. 2017년 7월 CGV용산아이파크몰에 처음으로 선보인 뒤, 지난해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영화 산업 박람회 '2018 시네마콘'에서 성공적인 글로벌 데뷔 후 영화 관계자들로부터 '미래형 영화관' 모델로 주목받았다.

CJ 4DPLEX의 김종열 대표는 "앞으로도 CJ 4DPLEX의 핵심 비전인 '혁신'을 통해 업계 관계자들과 관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인사

◆ **에쓰오일** ◇승진 △부사장 강민수 △상무 김광남 △상무 이건명 △상무 정영광 △상무 정상훈 △상무 김보찬 △상무 이환일 △상무보 김경태 △상무보 이영기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학부총장 이광형 △연구부총장 박현욱 △대외부총장 채수찬 △공과대학장 배충식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 고동환 △KAIST교육원장 권영선(교수학습혁신센터장 겸직) △KAIST안보융합연구원장 방효충 △학생정책처장 유승협 △학생생활처장 류석영(새내기과정학부장 겸직) △인권윤리센터장 남윤기 △학술문화원장 문수복 △연구처장 조광현(연구기획센터장 겸직) △KAIST창업원장 안성태(K-School 원장 겸직) △공과대학부학장 최성율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 곽시종 △케냐과학기술원 건립사업단장 김학성 △케냐과학기술원 건립사업단 부단장 김소영

◆ **저축은행중앙회** ◇ 승진 △경영지원본부 상무 최병주 △금융본부 본부장 김생빈

◆ **KR투자증권** ◇신규 △채권팀 전무 유태규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김주봉 △인재개발연수본부장 윤현진 △인사총무실장 권혁상 ◇승진 △경력개발지원실장 임재원 △스마트교육실장 김지은

◆ **부산시** ◇3·4급 직위 △교통혁신본부장 박진옥 △사상구 부단체장 요원 한기성 △시의회 의사담당관 하대일 △원자력안전과장 이용창 ◇5급 직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획 정태기 △총무과 청사관리 권오상 △보건위생과 의료지원 조규율 △임재개발원 팀장요원 구철문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문화융·복합단장 이지현

◆ **한국릴리** △의학부 총괄 부사장 조성자

부음

▲이채욱(전 CJ그룹 부회장)씨 별세 = 10일 오후, 발인 13일 오전 8시 4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02-3410-6917

▲김정자씨 별세, 이창희(토러스투자증권 법인영업본부장)·이만희씨 모친상 = 11일 오전 7시 30분께,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02-2227-7597

▲김경숙 씨 별세, 김능구(폴리뉴스 대표)·한구(이태원 가구협회장)·미영·원영·지영씨 모친상, 박혜경(서울교육협동조합 연합회장)씨 시모상·김동탁(전 삼성물산 부장)·최영문(미국FDA 심사관)·진태원(피닉스컴퓨터 대표)씨 장모상, 김정아(JF스타일리스트 대표)·민혜(CJ대한통운 근무)·민주·수민(캐피털OneBank 매니저)·세민 씨 조모상 = 11일 오전 8시 2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7시, 010-5281-4721